

전 남

“지역 예술단체는 들러리냐”

영산강사업 준공 기념축제...주요행사 20여개 외지단체에 집중

10억들여 대대적 행사...나주 예술단체 집단반발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 준공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가의 가을축제'를 놓고 지역 예술단체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영산강 사업 준공에 맞춰 문화관광부가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도비 2억5000만원 및 시비 2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준공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강가의 가을 축제'라는 제목의 이번 행사는 다음달 27일~31일까지 5일간 나주시 삼영동 영산강둔치 체육

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축제 기본 계획에는 4대강 사업이 이뤄지는 거점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축제를 열고 기존 지역축제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대표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하지만 나주시의 축제관련 과업지시서에는 이미 창작뮤지컬 '스페셜 레터'와 서울예술단 '바람의 나라' 공연 등 굵직한 20여개의 주요행사가 외지 예술단체와 서울의 모 행사 대행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예술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축제 추진과정에서 지역문화 예술단체와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가위 날기식' 프로그램 구성이 이뤄진데다, 나주시가 예산마련을 위해 기존 예술단체 지원예산을 목 변경해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일파반파로 번지고 있다.

지역 예술단체 회원들은 "우리가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는 들러리 집단이냐"는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지역 7개 예술단체회원 500여명은 이날 "이번 축제가 지역문화예술의 특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지역 예술혼을 사탕개 했다"며 항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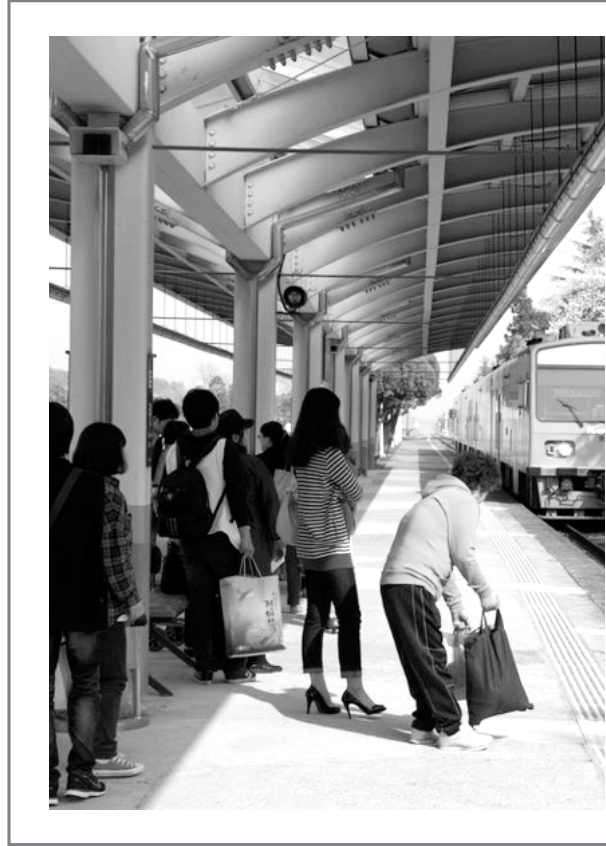
시로 조기(弔旗)를 나주예총 건물에 게양했다.

이들은 또 조만간 시민단체들과 연이 나주시 전역에서 추모 만장(饗章) 행렬시위와 길거리 노제를 열고 나주시에 항의 서한 전달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어서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문화부가 마련한 행사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지역예술단체의 영산강문화축제 관련 프로그램은 예산과 똑같이 진행되며 예산도 변동없이 지원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보성 녹차밭 데이트 보성 녹차밭을 찾은 연인 한 쌍이 차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초가를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차는 전국 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보성군 제공>



문화와 전통의 멋이 흐르는 득량역

문화부 '간이역 디자인' 선정

연말까지 문화공간 리모델링

보성군 득량역(사진)이 문화와 전통을 담은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1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 간이역' 공모에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득량역 전통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최근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연말까지 국비 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한적한 자연의 풍경과 전통 마을을 모티브로 해 전통의 멋과 선인들의 지혜를

담은 맞이방(대합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보성소리 상설 공연 등을 통해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득량역 '소일바위'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부각시켜 열차 운행과 병행해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득량역 주변에는 100년이 넘는 전통가옥이 많은 득량 강골마을과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비봉 공룡공원, 갯벌 등 주변 관광 자원이 풍부해 관광열차 운행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선성기자 sun@

전국 초등학교 대상
고흥 목일신 동요제

고흥출신 동시·동요 작가인 고 목일신(1913~1986)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동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일깨우는 '제2회 고흥 목일신 동요제'가 다음달 열린다.

고흥군 주최·(사)민족예술인총연합 고흥지부 주관하는 이번 동요제는 전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독창과 중창 부문에서 경연을 벌여 본선에 14팀이 진출한다.

본선 진출자는 목일신 선생 작사 동요(주최측에서 제시한 6곡) 중 1곡을 포함해 불러야 한다. 참가신청은 10월 14일까지이며 10월 22일 예선을 거쳐 10월 31일에 본선이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주경희기자 gjju@

광산구 '마을형 사회적기업' 3곳 선정

사업비 3000만씩 지원

광주 광산구는 '마을형 사회적기업' 3개소를 선정해 각 300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난 3월 '2010 지역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국무총리상과 함께 받은 상사업비를 활용했다. 지원금은 사업 개발비와 시설 보강비 등에 쓰인다.

이번 선정된 '마을형 사회적기업'은 ▲더불어 락(樂) 행복한 밥상(월곡1동) ▲다문화 들꽃(野花) 카페(삼도동) ▲가는날이 장날(동곡동)이다. 지역 노인들이 중심이 돼 운영할 '더불어 락(樂) 행복한 밥상'은 월곡시장에서 두부와 팔죽을 만들어 팔게

획이다. '다문화 들꽃(野花) 카페'는 평동역 안에 있는 카페 '들꽃'에서 추진된다. 삼도동 통촌마을의 이주여성들이 만든 각국의 민속 공예품과 세계의 전통차가 이곳에서 판매된다.

'가는날이 장날'은 동곡동 주민들이 정성껏 가꾼 농작물을 낱장 탐자에 싣고 아파트 단지 등 소비자가 많은 곳을 찾아 여는 직거래 장터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 15명이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광산형 사회적기업의 모델로 자리 잡아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지고, 나눔 공동체 구현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

전남도 하천변 저류지 일제점검

전남도는 23일까지 하천변 저류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도내 21개 지구 전체로 집중호우로 인한 저류지 부유물질 제거 상태, 배수문과 자동문 작동 여부, 저류지 산책로 및 탐방로 청소 상태, 식재된 수목의 생육상태, 각종 표지판 정비상태 등이다.

전남도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38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을 진행중으로 오는 11월

까지 21개 지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승현 전남도 건설발전재정장은 "지금까지의 하천사업이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면 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은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도민의 여가 선용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는 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흥 해역 김 채묘 적기 10월 1~7일

김 주산지인 장흥 해역의 김 채묘 적정시기는 10월 1일부터 7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소는 장흥연안 해역의 10년간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온이 22.5℃ 이하로 내려가는 10월 1일부터 7일을 2012년산 김 채묘 적정 시기로 발표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장흥연안 해역의 평균 수온은 23도로 전년보다 0.8도, 평년보다 1.6도 낮았지만 김 채묘에 적정한 22.5도 이하로 내려

가려면 10월 1일이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해수의 염분농도를 나타내는 비중은 1.0242(‰)로 평균 1.024과 밀 범위에서 김 채묘에 적정하다.

김일용 장흥지소장은 "김 채묘는 김 양식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적기 채묘와 득량만 환경에 맞는 품종 선택이 중요하며" "고품질 김생산을 위해 어장별 담당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한약재 첨가 기능성 돼지사료 개발

전남농기원 축산연구소 특허 취득

한약재를 이용한 기능성 돼지사료가 개발돼 사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최근 '한약재를 이용한 증체(增體) 목적용 돼지사료 첨가제'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사진> 김삼욱 수석연구원은 지난 2008년 한국가축위생학회지에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해 3년여만에 특허를 취득했다.

연구결과 한약재를 돼지사료에 첨가한 경우 일반 돼지보다 체중이 10.1% 증가한 반면 사료요구량은 5.6% 감소해 사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창호 축산연구소장은 "전남도 녹색축산의 비전 실현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에 전념해 온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일부 결실을 거둔 것"이라며 "축산현장 애로사항 해



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with multiple columns. Includes '대인동심일부동산', '나주혁신도시 전문', '동명공인중개사', '나라공인중개사', '중앙공인중개사', and '금당 공인중개사'. Each column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with details like price, location, and features.